

■ 입학정원 감축... 최대 위기 맞은 광주교대

# 끝내 못버린 총장직선제 결국 학생·학교만 불이익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입학정원 감축이라는 최후 통첩을 받은 광주교대가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교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교과부의 구조개혁 방안을 거부함에 따라 정부의 제재가 가시화됐다.

교과부는 당장 내년부터 입학정원을 81명 줄이고 행·재정 지원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제재가 가해질 경우 교원양성기관으로서의 존립기반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교과부의 입장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으나 광주교대가 총장 직선제 폐지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대다수 교대가 정부안을 수용했지

만 사실상 광주교대만이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70% 이상이 직선제 폐지에 반대했다.

교수들은 총장직선제가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보장돼 있고, 대학자율권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총장 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총장선거가 뛰어난 3~4명의 교수와 그 지지자들이 기록권(?) 때문에 직선제를 고수했다는 게 대학 안팎의 비판이다.

정원감축이라는 교과부 제재가 발표되면서 총장 직선제 폐지 등 구조개혁안을 수용하지는 움직임을 학교 안팎에서 일고 있다.

10일 박남기 광주교대 총장은 호소문을 내고 "73년 역사의 대학이 현재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정부와의 협의 체결에 모든 구성원이 협력해달라"고 호소했다.

광주교대 직원 협의회도 "정부의 국립대학 교육개혁 방안을 거스를 수 없으며, 학교의 존폐 위기에서 총장직선제 고수가 최선의 선택이었는지 인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총동문회 고문단도 대체로 "학교와 학생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교과부 안 수용을 당부했다.

한편 교과부는 구조개혁안을 수용하지 않았던 광주교대와 부산교대가 오는 18일까지 구조개혁 동참의사를 밝혀오면 제재를 철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교대가 최근 정부의 구조개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정원 감축이라는 교과부의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됐다.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광주교대의 정문.

## “고층 아파트 들어서더니 닭 키우지 말라네요...”

남구 노대동 노인 “시끄럽다” 항의에 난감

“자식만큼 사랑스러운 닭들을 어떻게 해야할까요...”

광주의 한 농촌마을에서 취미 삼아 닭을 키우는 80대 할아버지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둔 인근 아파트의 주민들이 ‘닭 울음소리’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노대동 한 마을에서 집안 뒷밭에 닭을 키우며 사는 김모(80) 할아버지. 지난 봄 5일 장에서 사온 네 마리의 닭은 김씨 할아버지와 부인에게 자식만큼이나 귀한 존재다.

닭들이 매일 들려주는 “꼬꼬오~”하는 울음소리는 농촌에서 태어난 김씨 할아버지에게 소중한 어린 시절 추억을 회상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닭들은 매일 2~3개의 달걀을 낳아 김씨 할아버지 부부를 즐겁게 해준다.

그러나 닭 키우는 것을 인생의 유일한 낙으로 삼던 김씨 할아버지에게 최근 고민거리가 생겼다. 매일 새벽 5시면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를 참지 못한 인근 아파트 일부 주민들이 괴로움을 토로하

고 나선 것.

한 30대 청년은 최근 김씨 할아버지를 찾아와 “새벽마다 울려 퍼지는 닭 울음소리 때문에 잠자리에서 뒤척인다”며 “닭 사육을 중단하지 않으면 구청에 민원을 넣겠다”며 으름장을 놔다.

현행법상 김씨 할아버지가 키우는 닭의 울음소리를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다. 소음의 크기를 떠나 닭이나 소와 같은 가축의 울음소리는 소음·진동규제법상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

하지만 여든 평생 남에게 폐를 끼친 적이 없는 김씨 할아버지는 자신이 키우는 닭들 때문에 괜히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더욱 큰 갈등을 빚게 될 것 같아 걱정이다.

김씨 할아버지는 “병이리 때부터 키운 닭들과 생활하는 것은 큰 즐거움인데 난감하다”며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한다면 어쩔 수 없이 사육을 중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 전호중 총장·이사진 퇴진 요구

조선대 교수평의회·교직원노조

조선대 교수평의회와 교직원노동조합은 10일 대학 본관 앞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발대식을 열고 전호중 총장의 사퇴와 이사진 퇴진,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전 총장이 ‘구성원 지지 실패, 이사회 낙점 성공’의 당사자가 된 것은 불행한 일이다”며 “선관위가 당

선무효를 선언한 만큼 조속히 총장 재선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위기상황 해결을 위해 이사와 총장, 직원노조위원장, 교수평의회 의장이 참여하는 ‘4인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5분  
해질 18시 04분

달돋이 17시 20분  
달질 05시 39분

“한낮엔 더워요”

대체로 맑고, 아침에 안개 끼는 곳이 있겠다.

광주	맑음	14/26℃
목포	맑음	15/24℃
여수	맑음	17/24℃
나주	맑음	12/26℃
완도	맑음	15/25℃
구례	맑음	11/25℃
강진	맑음	13/26℃
해남	맑음	12/26℃
장흥	맑음	12/26℃
순천	맑음	15/28℃
영광	맑음	11/25℃
진도	맑음	14/25℃
전주	맑음	12/24℃
군산	맑음	11/23℃
남원	맑음	8/24℃
홍산도	맑음	16/21℃

〈오전〉 바다

종항	파고	지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	보통	주의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	보통	주의

〈오후〉 바다

종항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목포 01:30	06:49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5m	13:48	19:08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1.0m	여수 08:29	02:15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1.0~2.0m	20:43	14:31

◇주간날씨

날짜	12(수)	13(목)	14(금)	15(토)	16(일)	17(월)
날씨	☀	☁	☁	☀	☀	☀
최저/최고	13/23	15/21	15/20	13/19	11/19	10/19

**시·도립대 9곳 특감**

감사원 이달안에

감사원은 이르면 이달 중 전국 시·도립대 9곳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별히 (의혹 등이) 포착됐다고는 그동안 서울대 등 국립대에 대한 감사는 많이 했지만 공립인 시·도립대를 대상으로 감사를 한 적은 없기 때문”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시·도립대의 운영 실태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남구 봉선시장 전봇대**

3억 들여 지중화 사업

광주시 남구는 봉선시장 내 전봇대 15개를 옮기고, 전선을 땅에 묻는 지중화 사업을 벌인다고 10일 밝혔다.

남구는 전통시장 살리기의 하나로 추진하는 이 사업에 11일부터 2012년 1월까지 사업비 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남구는 하수관거사업(BTL)과 동시에 착공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SINCE 1982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 말 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 노인성 난청에 탁월한 보청기
- 자연스런 소리연출이 가능한 보청기
- 이명 완화에 효과적인 보청기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서울점 02-765-9940

목포점 061-262-9200

순천점 061-752-9940

장흥점 080-222-9975

광주·전남  
기능장1호

#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 21년 가발 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시술후

2011년 신제품

# 50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여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것 해결함  
타사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인기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 “웨딩,객실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의 대형홀인 행사”

새롭게 준비한 가을웨딩  
총 100가지 뷔페

객실 50여실인 및  
조식뷔페(30종) 무료제공

각종연회행사 할인!  
(돌잔치,회갑연,송연모임,기업행사)

광주 최대의 5000평의 초대형주차장은  
오직 **호텔예술의전당** 뿐입니다!

뷔페식사는 대형예식장에 비해 훨씬 경제적입니다.  
가을뷔페는 총100여가지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및  
통창치와 즉석김치로 모십니다.  
하객 400인 이상 보증시 원목집대 및 협탁을 사은품  
으로 드립니다.  
성수기 혼잡한 대형 예식장에 비해 훨씬 여유있는  
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362-0011, 600-9999